

제2절 유럽권

1. 유럽권 만화 시장 개요

유럽권 만화 시장은 2010년 기준 45억 7,800만 달러로 추정되며, 전년 대비 다소 축소된 양상을 보이거나, 2010년 이후 다시 회복세를 가지며 향후 5년간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유럽 만화 시장 총 규모는 51억 1,100만 달러로 추정된다.

<표 III-3> 유럽권 만화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15 CAGR	
도서	소계	2,545	2,562	2,704	2,674	2,635	2,620	2,647	2,693	2,752	2,822	2,892	2.0%
	인쇄물	2,545	2,562	2,704	2,671	2,631	2,615	2,640	2,680	2,735	2,798	2,861	1.8%
	디지털	0	0	1	3	4	4	7	12	18	24	31	47.2%
잡지	소계	2,044	2,086	2,141	2,120	2,018	1,959	1,979	2,033	2,087	2,153	2,219	2.5%
	인쇄물	2,017	2,021	2,046	1,996	1,914	1,868	1,852	1,857	1,869	1,887	1,905	0.4%
	디지털	27	66	96	124	104	91	127	176	218	266	314	28.2%
인쇄물 소계	4,561	4,583	4,749	4,667	4,546	4,483	4,492	4,538	4,604	4,685	4,766	1.2%	
디지털 소계	27	66	96	126	108	95	134	188	236	290	345	29.3%	
합계	4,588	4,648	4,846	4,794	4,653	4,578	4,626	4,726	4,839	4,975	5,111	2.2%	
전년대비성장률		1.3%	4.2%	-1.1%	-2.9%	-1.6%	1.0%	2.2%	2.4%	2.8%	2.7%		

자료원: PWC(2010); Börsenverein des Deutschen Buchhandels; Frankfurter Buchmesse; Nielsen Company 외

유럽 만화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5개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순으로, 이들 5개국 시장이 약 75%를 차지한다. 5개국 중 프랑스가 향후 5년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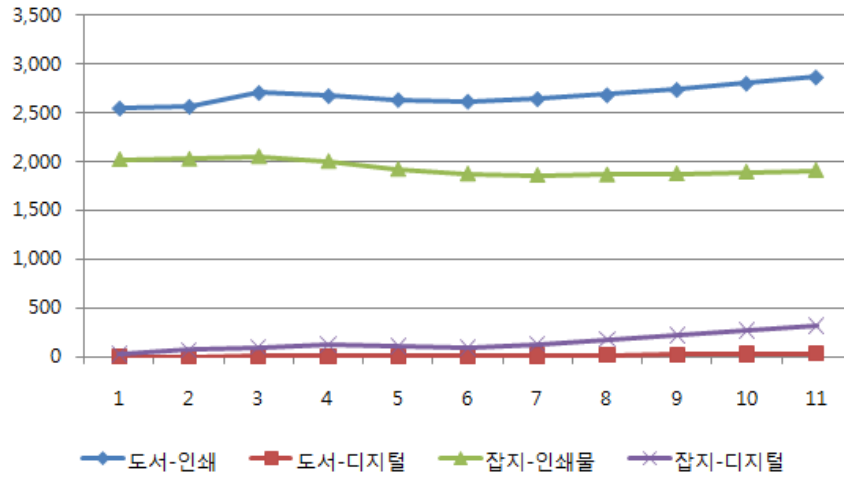
<표 III-4> 유럽권 만화 시장 규모 및 전망

국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성장률
영국	632	643	679	645	629	622	631	645	661	679	697	2.3%
독일	936	944	1,009	995	951	928	935	956	978	1,006	1,035	2.2%
프랑스	866	876	904	918	953	955	978	1,008	1,038	1,072	1,105	3.0%
스페인	700	703	703	692	665	648	650	660	669	681	692	1.3%
이탈리아	285	293	297	291	277	268	269	272	278	286	293	1.8%

분야별로 살펴보면, 2010년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도서 인쇄물 시장이며, 향후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 역시 디지털 도서 시장이나, 디지털 잡지 시장 역시 연평균 28% 정도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잡지와 도서를 포괄한 디지털 시장의 성장률은 향후 5년간 연평균 29.3%로 전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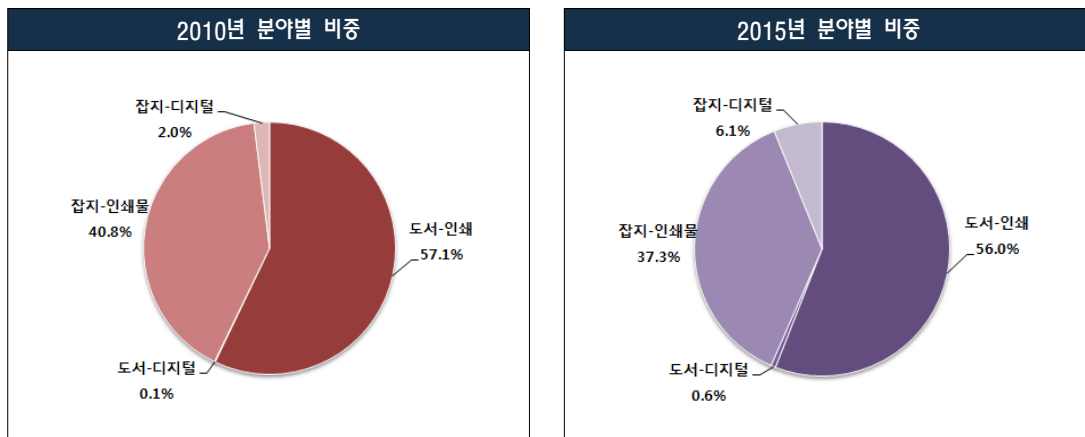
[그림 III-9] 유럽권 만화 시장 부문별 시장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유럽권 만화 출판 시장의 2010년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인쇄물 도서 시장이 5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이 비중이 다소 줄어들어 56.0%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10년 디지털 시장의 비중은 유럽권 만화 시장 전체의 2.1%인데, 2015년에는 6.7%로 증가하리라고 전망된다.

[그림 III-10] 2010년과 2015년 유럽권 만화 시장 분야별 비중



2. 프랑스 및 프랑스어권 만화 시장

프랑스는 유럽 만화 시장에서 독일과 함께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국가 중 하나로, 2010년 프랑스 만화 시장 규모는 4,578백만 달러로 추정되며, 벨기에와 함께 프랑스어권 출판·만화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잡지와 도서의 비중은 거의 1:1이다.

<표 III-5> 프랑스 만화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15 CAGR	
도 서	소계	478	464	514	497	475	463	466	472	482	494	507	1.8%
	인쇄물	478	464	514	497	475	463	466	472	482	494	507	1.8%
	디지털	0	0	0	0	0	0	0	0	0	0	0	-
잡 지	소계	458	480	494	498	476	465	469	483	496	512	528	2.6%
	인쇄물	452	464	471	466	449	441	435	436	437	440	442	0.1%
	디지털	6	15	23	32	27	24	34	47	59	72	85	29.0%
인쇄물 소계	930	928	986	964	924	904	901	909	919	934	949	1.0%	
디지털 소계	6	15	23	32	27	24	34	47	59	72	85	29.0%	
합계	936	944	1,009	995	951	928	935	956	978	1,006	1,035	2.2%	
전년대비성장률		0.8%	6.9%	-1.3%	-4.4%	-2.5%	0.8%	2.2%	2.4%	2.9%	2.8%		

자료원: PWC(2010); ACBD; ACTUA BD 외

프랑스 만화시장은 델꾸르, 미디어파르티시파시옹(다르고, 뒤피, 롬바르가 계열사임), MC 프로덕션, 플라마리옹그룹, 글레나그룹 등 20개 정도의 대형 출판사가 전체 출판부수의 3/4, 판매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권역, 국가에서 미국과 일본만화가 주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데 반하여, 비교적 프랑스어권 시장은 자국 만화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 만화 시장 전체로 보아도 14년째 연속 성장 추세다. 프랑스 만화 시장은 강력하고 방대하며 지난 14년간 해마다 끊임없는 성장을 해왔다. 2009년은 성장이 다소 둔화되었던 침체적인 해였지만 총 4,863종¹⁾이 출판되었고, 2008년 대비 2.4% 성장했다. 2009년에 신간 출간은 전년 대비 4% 감소하였으나, 시리즈를 하나로 모아 재출간하는 인터그랄(integrals)은 낮은 재판 비용으로 2009년은 전년도보다 9% 이상 성장하였다. 인터그랄 140종 중 40종은 나루토(Naruto) 시리즈였는데 첫 인쇄에서 5만 카피 이상을 기록했다. 50번째 기념판 아스테릭스(Asterix)도 2009년에 출간되었다(국제만화가대회 온라인칼럼, 2010.6).

그러나 지난 10여 년 전부터는 “일본만화의 거센 물결에 휩싸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출판저널, 2010.5)²⁾.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세대들이《틴틴》이나《아스테릭스》등의 프랑스-벨기에 전통의 만화를 읽으면서 자란 데에 반해, 전 세대와 문화적으로 변별적인 입장을 찾고자 하며 유럽만화의 엘리트주의를 기피하는 신세대들이 일본만화에 대거 몰입하기 시작하였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앞의 글)

이러한 배경하에서 또 한 가지 원인으로 프랑스어권 만화는 소일과 재미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술성과 문학성이 상당히 중시되어 왔고, 이에 따라 가격 또한 고가에서 형성되었으나,

- 1) 코믹 비평 저널 연합회, '질 레티어(Gilles Ratier)'의 연간 조사에 따르면, 3,599개의 새로운 타이틀로 892개의 재 인쇄판, 297개의 화보, 75권의 만화 관련 책이 나왔다.
- 2) 1999년부터 매년 7월에 파리 일본 박람회(Japan Expo)가 개최되었고, 2009년부터는 마르세이유에서도 일본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이 박람회는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 J-Pop 등 다양한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장이 되고 있다.

일본 만화는 낮은 가격대로서 상업적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08년 일본만화 판매부수는 1500만 부, 2000년~2005년 일본만화 판매 증가율은 150%에 이른다. 일본만화는 이제 프랑스 내 아시아만화 시장의 약 80%, 프랑스 만화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게 되었다. 한국 만화도 2003년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의 ‘한국만화 특별전’을 기점으로 급성장하여³⁾, 2006년의 경우 259종의 만화가 진출했고, 2006년 프랑스 내 아시아 만화 시장의 약 18%를 차지했다.

<표 III-6> 프랑스 만화 시장에서의 한국 만화 신간 발행 추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만화 신간 전체 발행 총수	1,292	1,484	1,730	2,120	2,701	3,195	3,312
번역물 신간 발행 총수	433	586	767	1,020	1,470	1,799	1,787
아시아 만화 신간 발행 총수	269	377	521	754	1,142	1,418	1,371
한국 만화 신간 발행 총수	미상	미상	미상	137	195	259	130

자료원: 이화인문과학원, 2009, p.52

한편, 다른 주요국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만화 출판사들의 디지털 만화에 대한 관심 또한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2009년 2월 거대 출판사 그룹인 Media Participations은 비디오 게임 등을 만드는 회사인 아뉴만 인터랙티브를 인수하여 BDtouch.fr라는 회사를 만들어 자사 출판 만화를 아이폰과 아이팟 터치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여기서 이미 발간된 만화의 1,2권을 위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만화뿐 아니라 해당 작가에 대한 정보, 관련 일러스트 등을 함께 서비스한다. 기출간 만화의 경우 2.39유로, 신간은 4.99유로다.

아브!코믹스는 2008년부터 휴대폰에서 만화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09년 10월말까지 보유한 타이틀 수가 100개 정도인데, 현재 그 두 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가격은 권당 0.79~5.49유로이며, 대부분은 4.99유로이다.

2009년 9월부터 만화가 루이스 트롱다임과 함께 블러드지(Bludzee)라는 휴대폰전용 만화를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블러드지는 1년 동안 매일 6컷짜리 한 회씩 연재된다. 블러드지는 구매 고객에게 크로키나 바탕화면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애플스토어와 블러드지 사이트에서 판매되는데, 한 달에 0.79유로, 1년에 8유로이며, 19개국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다.

그 외에 컴퓨터용 디지털 만화를 주로 서비스하는 Digibidi 등이 있다.

벨기에에서도 프랑스에서처럼 만화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또한 대중성도 높은 편이다. 인기 만화는 극장용 및 방송용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는 일도 많다⁴⁾. 최근에는 Willy & Wanda를 기초로 한 3D 애니메이션 Les Diabes du Texas(텍사스의 악인)이 영화관에서 상영되었다. Sony Pictures와 Columbia Pictures가 Smurfs 3D 장편영화로 제작중이며 2011년에 개봉 예정인데, 이 영향으로 국내 CF에 등장하기도 했다. Smurfs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IMPS S.A(International Merchandising, Promotion & Services)와 LAFIG Belgium은 지역별로 머천다이징 라이선스 양도 계약을 맺었는데, 장편영화 개봉과 동시에 시행될 영화 인

3) 2003년 도깨비라는 만화사가 프랑스어권 나라에서 한국만화를 본격적으로 출간하기 시작했으며, 그 후 프랑스어권은 유럽에서 가장 큰 한국 만화 시장이 되었다.

4) Tintin, Lucky Luke, Gaston Lagaffe, Smurfs, Marsupilami, Musti, Asterix, Quick et Flucke, Bill et Boule 등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다.

물의 캐릭터 라이선스는 세계 시장을 아우르는 유력한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Tintin, Smurfs, Asterix, Marsupilami, Spirou 등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은 캐릭터 제품으로 활용되기도 한다⁵⁾. 그러나 캐릭터 상품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는 프랑스나 독일 소재 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벨기에의 대표 작가로는 Hergé(Tintin), Franquin(Gaston Lagaffe), Peyo(Smurfs), Morris(Lucky Luke), Jean Robe(Boule & Bill), Willy Vandersteen(Willy & Wanda), Uderzo(Asterix) 등이 있다.

2009년은 벨기에에서 만화가 탄생한지 100년이 되는 해로, 이 해를 “브뤼셀 만화의 해(Brussels 2009 BD Comics Strip)”로 지정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였으며, 2009년 5월에는 브뤼셀의 만화책 전문점 Ninecity 내에 Museum of Original Figurines도 개관하였다. 또한 TinTin 저작권을 관리하는 Moulinesart S.A는 17백만 유로를 투자하여 Louvain-La-Neuve에 3,600㎡ 규모의 Tintin 박물관을 설립, 2009년 5월에 개관하였다(“벨기에, 애니메이션 캐릭터 시장동향”, KOTRA Global Window, 2010).

3. 독일 만화 시장

독일 만화 시장은 규모에 있어서 유럽에서 가장 크다. 독일 만화 시장의 2010년 규모는 9억 5,500만 달러로 추정되며, 전반적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 회복 및 디지털 시장 성장 등에 힘입어 향후 성장 속도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향후 5년간 연평균 3.0%), 이에 따라 2015년 11억 7,2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I-7> 독일 만화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15 CAGR	
도 서	소계	516	525	549	564	616	626	641	659	679	701	722	2.9%
	인쇄물	516	525	549	564	616	626	641	659	679	701	722	2.9%
	디지털	0	0	0	0	0	0	0	0	0	0	0	-
잡 지	소계	350	351	355	354	338	330	337	348	359	371	383	3.0%
	인쇄물	345	339	338	332	319	313	313	314	316	318	321	0.5%
	디지털	5	11	17	23	19	17	24	34	43	52	62	29.7%
인쇄물 소계	861	864	887	896	935	938	953	974	995	1,019	1,043	2.1%	
디지털 소계	5	11	17	23	19	17	24	34	43	52	62	29.7%	
합계	866	876	904	918	953	955	978	1,008	1,038	1,072	1,105	3.0%	
전년대비성장률		1.2%	3.2%	1.6%	3.8%	0.2%	2.4%	3.1%	3.0%	3.2%	3.1%		

자료원: PWC(2010); Comic.de 외

그러나 프랑스어권에 비하면 독일어권 만화시장은 그리 견고하지 못하며, 일본 만화 수입 역사도 길지 않지만 그 잠식은 심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3대 대형 만화 출판사 중 하나가 바로 독일 도쿄팝, 또 하나가 EMA(Egmond Manga und Anime)라는 점에서도 일본 만화의 위상을 알 수 있다. 다른 한 출판사는 Carlsen으로, 에반겔리온, 드래곤볼 등 역시 주력 콘텐츠는 일본 만화다. 일본 만화 붐이 일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로, 그 이전까지는 미국

5) 지금까지 전 세계에 걸쳐 판매된 Smurfs 인형은 3억 개, 만화책은 2,000만 권에 달하며, 애니메이션은 25개 국어로 번역되었다고 보고된다.

만화를 중심으로 수입되었던 Comics와 프랑스어권 만화 번역 출간이 대부분이었던 A4 사이즈 하드커버 만화책인 '앨범' 시장이 두 가지 흐름이었다(조정래, 2007. p.119).

독일에서도 전자책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2007년에는 독일도서거래협회의 주도하에 대규모 텍스트-데이터뱅크인 리브레카(Libreka!)가 만들어졌다. 리브레카에서는 1,326개 출판사의 313,544종의 도서, 5천만 페이지 검색이 가능하며, 31,816종의 전자책을 판매하고 있다.

4. 프랑스어권 · 독일어권 외 유럽 만화 시장

기타 유럽 주요 만화 산업 시장으로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을 들 수 있다. 2010년 이들 국가의 만화 시장 규모는 각각 6억 4,800만 달러, 6억 2,200만 달러, 2억 6,800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디지털 도서 만화 시장의 규모는 영국에서만 추정이 가능하였으나, 향후 다른 국가에서도 급성장이 전망되며, 이에 따라 집계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인의 경우 만화 잡지 시장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특징을 지닌다. 향후 5년간 이들 국가의 만화 시장 성장률은 이탈리아 1.3% 영국 2.3% 스페인 1.8%로, 영국 만화 시장 비중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I-8> 이탈리아 만화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15 CAGR	
도 서	소계	321	321	323	322	321	322	323	325	328	332	335	0.8%
	인쇄물	321	321	323	322	321	322	323	325	328	332	335	0.8%
	디지털	0	0	0	0	0	0	0	0	0	0	0	-
잡 지	소계	379	382	381	370	344	327	327	335	341	349	357	1.8%
	인쇄물	374	370	362	346	325	310	303	302	300	300	299	-0.7%
	디지털	5	13	18	24	18	17	23	33	41	49	58	27.9%
인쇄물 소계	695	691	685	668	646	631	626	627	629	631	634	0.1%	
디지털 소계	5	13	18	24	18	17	23	33	41	49	58	27.9%	
합계	700	703	703	692	665	648	650	660	669	681	692	1.3%	
전년대비성장률		0.4%	0.0%	-1.6%	-3.9%	-2.5%	0.2%	1.6%	1.4%	1.7%	1.7%		

자료원: PWC(2010); Börsenverein des Deutschen Buchhandels; Frankfurter Buchmesse; Nielsen Company 외

<표 III-9> 영국 만화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15 CAGR	
도 서	소계	322	331	347	325	320	319	320	324	330	337	344	1.5%
	인쇄물	322	331	347	325	319	317	318	319	323	327	331	0.9%
	디지털	0	0	1	1	2	2	2	5	7	10	12	51.5%
잡 지	소계	311	312	332	320	309	303	310	321	331	342	353	3.1%
	인쇄물	303	293	306	288	283	281	280	281	284	286	289	0.6%
	디지털	8	19	26	32	26	22	30	40	47	56	64	23.4%
인쇄물 소계	625	623	653	612	602	598	598	601	606	613	620	0.7%	
디지털 소계	8	19	26	33	27	24	33	45	55	65	76	26.1%	
합계	632	643	679	645	629	622	631	645	661	679	697	2.3%	
전년대비성장률		1.6%	5.7%	-5.0%	-2.5%	-1.1%	1.4%	2.3%	2.4%	2.7%	2.6%		

자료원: PWC(2010); Börsenverein des Deutschen Buchhandels; Frankfurter Buchmesse; Nielsen Company 외

<표 III-10> 스페인 만화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15 CAGR	
도 서	소계	217	223	224	219	209	203	204	206	210	214	218	1.4%
	인쇄물	217	223	224	219	209	203	204	206	210	214	218	1.4%
	디지털	0	0	0	0	0	0	0	0	0	0	0	-
잡 지	소계	68	70	73	73	68	65	65	67	69	72	75	2.9%
	인쇄물	67	68	70	68	64	62	61	60	61	62	63	0.4%
	디지털	1	2	4	5	4	3	5	7	8	10	12	30.8%
인쇄물 소계	284	291	294	287	273	265	265	266	270	276	281	1.2%	
디지털 소계	1	2	4	5	4	3	5	7	8	10	12	30.8%	
합계	285	293	297	291	277	268	269	272	278	286	293	1.8%	
전년대비성장률		2.9%	1.4%	-2.0%	-4.9%	-3.1%	0.4%	1.1%	2.2%	2.7%	2.6%		

자료원: PWC(2010); Börsenverein des Deutschen Buchhandels; Frankfurter Buchmesse; Nielsen Company 외

이탈리아의 경우, 2009년 만화책 판매가 15% 감소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 보넬리 출판사의 매출은 약 15년 전부터 3~6%씩 꾸준히 감소하였다. 만화책 독자층 감소는 현 경제위기와 관련보다는 세대교체와 기술발전 등 더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여서 이탈리아 만화업계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즉, 비디오게임, iPod 등의 영향이 만화 독자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III-11] Gianluca Maconi 의 “Il delitto Pasolini (Pasolini’s murder)”(Becco Giallo, 2008)



반면에 스페인은 자국 만화가 다시 부흥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성 있는 만화 출판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시장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관건이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스페인에서 e-book과 기타 온라인 매체들은 널리 퍼져있지 않으나, 주요 스페인 출판사인 Planeta와 Mondadori는 온라인 서적 홍보

에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 바르셀로나에 기반을 둔 Norma Editorial SA는 스페인어와 카탈로니아어로 된 만화 출간에 특화하고 있다.